

## 광주시 산하기관 통폐합 확정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28곳을 22곳으로

광주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타기관의 수가 기존 28곳에서 6곳이 통·폐합 또는 민영화돼 22곳으로 줄어든다. 출연기관 중 전락산업진흥원과 과학기술고용협력센터는 광주테크노파크로 합쳐지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공연예술재단이 통합돼 내년 초 광주문화재단으로 출범한다. 또 삼주축구단은 법인해산되고, 광역정보센터는 주식매각을 통해 민영화된다. <관련기사 2면>

광주시는 27일 “공기업조직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공기업 등 28개 기관에 대한 기능재편 및 조직효율화 방침을 최종 결정했으며, 다음달부터 통·폐합 대상기관의 법인 해산, 관련 조례 개정 등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폐합 및 민영화와는 별도로 산하기관 전체의 조직 효율화를 통해 상위직제와 일부 기관의 국·부·팀·계가 축소돼 광주시는 전체 1723명의 정원 중 5%에 해당하는 90명이 감소하고, 경상경비 등 101억78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공기업 등 산하기관의 구조조정 후 광주문화재단과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 등이 출범할 예정이어서 광주시의 전체 산하기관은 24곳이 될 전망이다.

민영화 대상인 광역정보센터는 준비기간을 두고 오는 2012년 이후 주식을 매각하며, 민영화에서 제외된 출자기관 수원에너지는 수완·하남2택지지구의 주민입주가 완료되는 오는 2016년 이후 이를 검토할 방침이다.

애초 광주시로부터 매년 수억~수십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 등에 대해 구조조정 폭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4곳에 멈춘 것은 기관의 폐지보다는 기능과 역할을 재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통·폐합 대상기관들의 직원 고용승계 문제 등 제반 사항은 통합이사회에서 논의돼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민선 5기 출범 이후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교수·시민단체 관계자·공인회계사 등으로 각계 전문가로 공기업조직혁신위원회와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해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U대회 티셔츠

2010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기념 티셔츠 패션쇼가 27일 광주 신세계백화점 1층에서 열렸다. 이날 패션쇼에서는 공모전에서 수상한 29점의 티셔츠 디자인이 소개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김태호 인준’ 9월 1일 처리

여야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당초 27일 소집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 등을 감안, 9월 1일로 연기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근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 인준동의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현격한 입장차로 본회의 개최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당초 국회는 이날 오후 총리 인사청문특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어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앞서 인사청문특위에서는 ‘박연차 게이트’ 관련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청문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청문보고서 채택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의 한나라당이 정면 충돌했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특위는 정회를 거듭하는 등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진통을 이어갔다.

박기춘 수석부대표는 “오늘(27일)은 무리해서 청문보고서를 상정·채택하지 말자고 제안했고, 한나라당 이근현 수석부대표와의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정일-후진타오 창춘 회담 가능성

중국 방문 이틀째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7일중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해졌다.

북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후 주석은 며칠 전부터 휴양지 동북3성 모처에 체류하고 있다가 27일 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창춘(長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방중 첫날을 보낸 지린(吉林)성 지린시 우송(霧淞) 호텔을 떠나 의전차량 편으로 10시 30분경 창춘 난후(南湖)호텔에 도착했다.

난후호텔은 베이징(北京)의 다오위타이(釣魚臺)에 해당하는 지린성의 영빈관으로, 고(故) 김일성 북한 주석과 후 주석 등 중국의 당·정 지도자들이 숙소로 애용해온 만큼 이곳에서 김 위원장과 후 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 위원장이 이날중으로 후 주석과 회담한다면 28일 2박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창춘을 떠나 북한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은 차기 당권주자들의 ‘출정지’

# 민주당 본가 위상 되찾나

10·3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전남이 민주당 본가(本家)의 위상을 다시 찾고 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이 광주와 전남에서 당권 도전 첫 행보를 시작하는 등 광주·전남에 대한 애정 어린 구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8월23일~27일)에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가 유력시되는 손학규·정동영 상임고문, 천정배·박주선·김효석 의원 등이 광주·전남을 찾았다. 장성민, 이인영 전 의원 등도 광주와 전남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등 대부분이 호남에서 당권 도전을 위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의 정신허고향이며,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2012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다시 한번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민주진보세력의 대통합에 대한 길을 물어오며 호남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손학규 전 대표는 2년여 간의 춘천 칩

거를 청산한 뒤 처음으로 지난 25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5월 영령과 광주·전남 지역민들 앞에서 사실상 당 대표 출마의 뜻을 밝혔다.

손 전 대표는 특히 체류 일정을 연장하며 담원과 대의원뿐 아니라 강연대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 광역단체장과 광주·전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장 등을 잇달아 만나 민주당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지난 26일 광주에서 야3당과 함께 민주진보세력 대연합을 통한 2012년 정권교체 토론회를 하는 등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민주진보세력 대연합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지역 출신인 천정배·김효석·박주선의 원도 사실상 광주와 전남에서 당 대표 출마의 뜻을 밝히고, 첫 행보를 지역민과 함께 했다. 이들도 23일~28일 사이 수시로 광주·전남을 오가며 ‘DJ’를 이들 지역출신 인물을 키워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당권 주자들의 ‘호남 채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광주·전남이 민주당 텃밭인데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등 민주정부 10년을 만들어낸 광주·전남지역민의 지력을 끌어안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권파의 분석이다.

민주당이 국민의 정부 이후 탈(脫) 호남을 통한 전국 정당으로의 변화를 꾀해온 탓에 광주·전남이 당 내에서 입지가 그동안 좁아지긴 했다. 하지만, 10·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민주당 본가를 되찾고 있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특히 텃밭으로만 여겼던 광주·전남에서 지난 6·2 지방선거와 7·28 보궐선거를 통해 엄청난 경과와 제책을 받으면서 민주당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대까지 한 달여가 남았지만, 차기 당권주자들의 ‘호남행’은 더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ENJOY THE FOOD LIFE"**  
베네치아와 함께 하세요!!

스타일의 한상 특별 와인

이탈리아산 최고급 와인 베네치아 와인  
맛 좋고 맛좋은 고급 와인 베네치아 와인  
식용성분도바다와 스페셜 와인  
이탈리아산 최고급 와인 베네치아 와인

**월드립점 OPEN**

베네치아

대도시를 위한 단체 40~70석 가능!

월드립점 021-877-6830